

IS 요충지 티크리트 이라크군 탈환 임박

이라크군이 이슬람국가(IS)가 장악 중인 전략 요충지 티크리트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10일(현지시간) 이라크군이 티크리트의 동북쪽에 인접한 이날 오전 완전히 장악했으며, 해질 무렵에는 티크리트를 전방위에서 포위하고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군은 이어 티크리트 일부 지역을 장악했으며 지역 의회와 주정부 건물에 있는 도식 진입을 코앞에 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라크군 관계자들은 시 외곽에 있는 사담 후세인궁 주변도 에워싸고 있다고 전했다.

역명을 요구한 이라크군 관계자들은 IS 조직원 대다수가 티크리트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으며, 별다른 저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합정 공격이나 자살폭탄 공격 등을 우려해 신중히 진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현지 관리는 이라크군이 알람 지역 북쪽 쪽의

스강은 티크리트의 동편에서 흐른다. 한 이라크군 중령은 “다리 폭파의 목적은 이라크군 진출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이 다리가 동쪽 방향에서 티크리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군은 티크리트 서쪽 지역에 대규모 군기지를 확보하고 있어 이 기지를 활용한 티크리트 진입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티크리트에서 저항하는 IS 조직원의 수는 수백~10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탈환 작전에 동원된 이라크군, 시아파 민병대, 친정부 수니파 무장대원의 규모는 3만 명 정도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살라후딘주 티크리트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전방위 포위·공략... IS, 교량 폭파후 저항 ‘시리아 IS’도 주요 통신·보급선 차단 당해

이라크군, 티크리트 시내 진입 임박



아일 유전도 탈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IS가 최소 10곳의 유전에 불을 질렀으며 이라크군이 아일 유전을 완전히 탈환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 국영 프레스TV는 이라크군이 여러 방향에서 티크리트 주변 지역을 장악했고, 일부 병력이 티크리트에 진입하면서 퇴각한 IS 조직원들이 시내 중심부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프레스TV는 또 티크리트 시내 도로가 이라크군의 공격에 숨진 IS 무장대원의 시체로 뒤덮였고, IS는 탈영 조직원을 사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IS는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를 막고자 은신처로 쓰던 티크리트 시내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가 장악한 북부지역에서 티크리트로 조직원 증원을 이뤄지고 있다.

AFP통신은 IS가 포위망이 좁혀지자 티크리트 시내로 연결되는 티그리스 강의 유일한 다리를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티그리

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다. 이라크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반(反) 이슬람국가(IS) 군사조직들도 시리아와 이라크의 IS 세력을 연결하는 주요 통신선과 보급로를 차단했다고 미군 통합합동기동부대(CJTF)가 이날 밝혔다.

CJTF는 성명에서 지난 7일 종료된 2주간의 작전으로 국제동맹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반 IS 군사조직들이 시리아 북부 전략요충지인 탈하미스 마을 인근에서 “IS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제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반 IS 군사조직들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이어지는 IS의 핵심 통신·보급선인 ‘루트 47’의 주요 부분을 장악할 수 있었다”며 IS는 이라크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주 경로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東일본대지진 4주년 추모

東일본대지진 발생 4주년인 11일(현지시간) 후쿠시마(福島)현 나미에(浪江) 길가 꽃다발이 놓인 추모석 앞에서 노부부가 희생자들을 기리며 합장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미야기현 산리쿠(三陸)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 지진으로 태평양에 강력한 해일(쓰나미)이 발생해 도호쿠(東北) 지역 해안을 대거 침수시켰으며 15만8863명이 사망자와 2584명의 실종자를 낳았으며 22만8863명이 피난 생활 중이다. /연합뉴스

노련했다

독일 언론, 메르켈 日 방문중 ‘영토·과거사’ 발언 보도

독일 주요 언론은 10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에서 독일의 경험을 전하는 방식으로 과거사 직시의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주요하게 취급하며 그가 노련하게 문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메르켈 총리는 도쿄 체류 기간 아사히신문 연설 문답과 기자회견, 일본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군 위안부 문제 해결까지 거론할 정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소재에 대해 할 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지 빌트를 포함한 몇몇 언론은 이날 일본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서 군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당과의 회동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메르켈 총리의 방일 직전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신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한 진보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화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가 연설 장소로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는 아사히신문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암묵적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메르켈 총리는 일본 정부를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을 것”이라며 “그는 일본에서 이 문제를 아주 노련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공영방송 NHK는 메르켈 총리의 이런 발언을 무시한 채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메르켈 총리가 연설한 장소를 그저 한 신문사라고 일버무렸다”고 전하고 “이것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학습능력 정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꼬집었다.

중도 성향의 프랑크푸르터알레마이네 차이퉁(FAZ)은 “정상화로 가는 험로”라는 제목의 2면 특기사에서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대한 비판 대신 왜 독일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불변한 반응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FAZ 역시 아사히신문을 연설 장소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하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하고 NHK가 연설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메르켈 총리의 연설 내용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디 빌트는 “메르켈 총리의 평화 메시지”라고 제목 붙인 기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가 과거사 청산이 화해의 전제라며 “화해의 주체는 언제나 두 당사자”라고 부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8일 중국 당국이 과거 전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옮기면서 메르켈 총리가 각국의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된 채 독일의 경험을 말해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반성없다

日 외무정무관, CSW 회의서 “위안부 진지한 대응” 억지 주장

우토 다카시(宇都隆史) 일본 외무정무관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중인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의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 권리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통신이 보도했다.”

우토 정무관은 또 연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현 가능한 구제책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최대한

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발언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같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연설에서 “위안부로 알려진 2차대전 중의 성노예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론이다.

우토 정무관은 이와 관련, “21세기에 여성 인권 등이 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WHO “에볼라 사망자 1만명 넘어설 듯”

세계보건기구(WHO)는 10일(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 수가 곧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WHO는 이날 발표한 에볼라 감염·사망자 통계를 통해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전 세계 에볼라 사망자 수가 9961명, 감염자는 2만 4247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라이베리아가 5일 현재 사망 4162명, 감염 9343명으로 가장 사망자 수가 많고, 뒤를 이어 시에라리온 사망 3629명, 감염 1만1619명이고 기니는 사망 2170명, 감염 3285명으로 집계됐다.

WHO 통계를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

망자 수는 지난달 10일 현재 9162명에서 한 달 사이에 799명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WHO는 이날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이 부실하고 미흡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WHO는 평가단 구성은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의료지원 민간단체인 옥스팜의 전대표인 바버라 스토킵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서아프리카에서 9900명의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WHO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한 뒤 오는 5월 잠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7평 - 20층 중 10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무등산 방향
- 전체 올수리, 즉시 입주
- 매매 - 5200만원
- 29평 - 20층 중 10층
- 양동 하천방향, 내부 깨끗
- 2015년 5월 입주
- 매매 - 7200만원

오피스텔 매매

문의 H. 010-3605-5000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18평 - 14층 중 13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대 방향
- 즉시 입주, 내부 깨끗
- 매매 - 3500만원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